



순창군이 의농업을 활용한 관광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순창 의농업체험관을 완공하고 최근 내부 악용작물 식재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에는 의농업 체험관이 관광객과 군민들에게 본격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순창 의농업체험관 가동 눈앞

군, 치유효과 있는 다양한 악용작물 등 전시·체험프로그램 진행

순창군이 의농업을 활용한 관광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순창 의농업 체험관을 완공하고 최근 내부 악용작물 식재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에는 의농업 체험관이 관광객과 군민들에게 본격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은 지난 7월 인계면 인덕로 427-127번지에 지상 1층 640.8㎡규모의 의농업 체험관을 완공하고 최근 목본류 54종 식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목본류 식재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초본류 120여종도 식재해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는 복안이다.

의농업체험관은 인체에 치유효과가 있는 다양한 악용작물 등을 전시하고 이를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시설이다. 내부는 테마별 악용식물구역을, 관상수구역, 전시 및

체험시설구역으로 나눠 이용객의 편리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눈길을 끄는 전시공간은 악용식물 구역이다. 이곳에는 ▲당뇨 및 해독약 ▲고혈압 ▲지양강장 ▲간보호 ▲항암 ▲기관지 천식 ▲수생식물 등 7가지 테마의 악용작물이 식재될 계획이다.

당뇨 및 해독 위장에는 담쟁이타일, 여주타일, 자초생강, 삽주등의 식물이 고혈압에는 허수오, 누리장나무, 조릿대, 오가피, 다우기 등이 지양강장에는 가시오가피, 산마늘, 비수리, 오갈피나무, 복분자 등이 식재된다.

기관지 천식 테마에는 산과, 비파나무, 더덕, 도라지 등이 식재된다. 항암을 테마로 해서 부처손, 머루, 대재, 짚신나무, 만병초 등이 간보호 테마에는 삼백초 여성초 등이 식재될 계획이다.

군은 이외에도 휴식공간도 마련해 내년부터는 본격적 운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악용작물을 관람 체험할 수 있는 순창군의 독특한 관광자원인 의농업체험관 내부 전시공간에 들어갔다"면서 "관광객들이 관광도 즐기면서 치유의 느낌도 받을 수 있도록 내실있게 준비해 나간다는"고 말했다.

한편 의농업체험관이 들어선 건강장수특구내에는 건강장수연구소, 힐링산책로, 건강장수테마과학관이 운영 중이며 노후준비를 위한 다양한 교육이 진행돼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또 식생활 체험관, 의농업체험관 등이 완공돼 본격 운영될 경우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 심민군수, 국가예산 확보 ‘총력’

중앙부처 방문… 봉황인재학당 건립·노인복지관 증축 등 건의

심민 군수가 국회와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관내 주요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반영을 적극 요청했다.

심 군수는 지난 14일 국회를 방문하고 17일 중앙부처를 방문해 임실 봉황인재학당 건립에 따른 부속사업비 10억원과 임실시장 다기능주차장 조성 부속사업비 10억원, 그리고 임실 노인복지관 증축 사업비 10억원 등 사업비 총 30억 원의 국가예산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임실 봉황인재학당 건립사업은 열악한 농촌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문화분위기를 조성하여 화합을 위해

도시로 떠나는 것을 방지하고 명실상부한 교육의 메카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2017년까지 총사업비 50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또한, 지난 2015년부터 오는 2017년까지 3년만에 걸쳐 추진되는 임실시장 다기능주차장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35억6천만원을 투입해 시장 기반시설과 문화콘텐츠 등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농·특산물 판매장, 한도음식판매장, 문화공연장, 주차장, 화장실 등의 시설이 들어선다.

임실군 노인복지관 증축공사는 2017년까지 총사업비 19억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전체 인구의 31%가 넘는 초고령지역인 관내 노인인 대상을 기존 노인복지관을 증축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정치권은 물론 중앙부처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갖춰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국가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농산물 친환경 실기술 경쟁력 강화 ‘청신포’

젤라틴·키틴 분해 미생물 농법

순창군이 GCM(젤라틴·키틴 분해 미생물)농법 실용화에 나서 블루베리 등 지역 농산물에 친환경 실기술 농업을 활용한 경쟁력 강화에 청신포가 켜지고 있다.

GCM농법이란 관행농업에서 사용하는 농약 대신 젤라틴·키틴 분해 미생물을 이용해 병해충을 방제하고 유용미생물 수를 늘려 작물 생육을 촉진시키는 친환경 농법이다. 보통 산충의 알집과 알집질, 병원성 곰팡이 세 포벽은 젤라틴과 키틴으로 구성돼 있는데 GCM 미생물이 이를 분해해서 산충과 곰팡이를 방제하고 유효 미생물 증가로 작물생육 촉진과 토양의 염류해소 및 개량 효과도 나타나는 농법이다.

군은 지난 8월부터 GCM농법 실증 시범사업에 참여할 15농가를 선정하고 기술지도에 나서고 있다. 대상 농가는 블루베리, 딸기, 샪채소, 콩 등 다양한 작물 분야에서 농가를 선정했다.

최근 17일에는 전남대 친환경농업연구과정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3차 현장 방문 지도도 진행했다.

정우진 교수 등 4명의 컨설턴트 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계자들과 사전 만남을 갖고 그동안 GCM농법 실증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효과 등에 대해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각 농가들의 농장을 방문해 실제 작물 생육상태 등을 점검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방문한 5개 농장에서 GCM농법을 꾸준히 실시한 결과 순창을 권

영배서 블루베리에서는 진딧물 감소 및 수확시기가 빨라지는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복숭아면 박수납미 농가에서는 콩과 아로니아에서도 병해충 감소와 생산량 증가 수확시기가 앞당겨지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정교수는 "아직은 시작 단계지만 병해충 방제는 물론 과수가 크고 수확량도 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친환경 농업이 필수인 만큼 순창에 GCM 농업이 성공적으로 뿌리 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지난 3월과 9월에도 전문가들이 참여한 GCM 실증사업 현장진행상황을 진행하는 등 삼각농장 친환경농업 실기술 보급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귀농귀촌인의 거리 ‘호응’

장류축제 기간중 동아리 활동 전시·체험·농특산물 판매

제11회 순창장류축제 기간중 제 2차 있는 귀농귀촌인들이 동아리 활동 전시, 체험 및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귀농귀촌인의 거리를 열어 큰 호응을 얻었다.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열리는 장류축제기간에 귀농귀촌인들은 토종쌀, 발효, 제과제빵, 침뜸, 축공예, 약초 동아리회원들이 그동안 활동을 전시·체험하고 귀농귀촌인이 재배한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장을 열어 관광객은 물론 지역주민들이 귀농인들의 삶을 이해하는데도 큰 도움을 줬다.

특히 천연재료를 이용하여 집을 짓는 흙건축, 열효율을 극대화 시키는 로켓스토브, 개량화덕, LED 등 적정기술 시연과 증고물품 재사용을 홍보하는 이너비드 부스는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또 시간대 별로 진행되는 우리마을 귀농인, 자전거를 돌려 만드는 솜사탕, 고무신 던지기 등 이벤트 행사는 축제 분위기를 한껏 끌어 올리는데 한 몫을 했다.

행사에 참석한 귀농귀촌인들은 "1년 동안 재배한 농산물을 직접 내수으로 판매해보니 가슴 뿌듯하고, 그동안 배워온 기술을 한자리에 모아 전시·체험 행사를 진행해 더욱 의미있는 행사였다"고 말했다.

군은 지역민과 함께하는 귀농귀촌인 동아리를 10개로 확대 조직해 재능을 발굴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단체로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우수한 귀농귀촌인 동아리는 집중 교육을 강화 및 사업화해 일자리 창출로 이어갈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별과 우주나눔심화교실II 진행

남원시는 지난 15일 남원항공우주전문대에서 별과 우주나눔심화교실II를 진행하였다.

이번행사는 체험과학을 접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천문우주과학의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사고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마련된 '천문캠프' 연계사업 중 하나이다.

남원항공우주전문대 천문전문가의 프로그램 진행으로 (사)한국천문우주과학협회에서 자체개발한 천문 창의과학프로그램과 과학교과, 그리스 로마신화로 보는 별자리 이야기, 천체 관측, 4D영상관람 등 평소 접하기 못했던 청소년들의 천문과학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풀어줄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남원=유영철 기자

교육받은 창업코칭반 14명으로 구성된 남원시 지리산명가협동조합이 설립되어 남원시 소상공인들의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남원농기센터, 창업코칭반 설립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에서 교육받은 창업코칭반 14명으로 구성된 남원시 지리산명가협동조합이 설립되어 남원시 소상공인들의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창업코칭반은 2015년도 명품농업대학 졸업생들로, 농식품 반에서 가공식품의 전반적인 이론교육을 이수하였고, 2016년도에는 6차산업 활성화교육과 식품위생 안전, 미생물활용교육, 위생법규 등 식품 가공 관련하여 심화교육을 받고 있다.

14명의 조합원들은 오미자, 포도, 토마토, 건강관련식품, 식초 등 다품목이라 처음에는 애로사항을 겪었지만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회원들의 시제품도 먼저 시용하고 개점점도 공유하며, 농산물 가격이 떨어져 어려움을 겪을 때 홍보도 해주면서 서로의 어려움을 같이 공유하고 이제는 친구, 가족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시험연구하고 있는 여러농산물을 활용한 조청과 잼, 부각을 기술이전하여 새로운 판로개척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경쟁을 넘어서 협동을 통해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적인 협동조합이 될 수 있도록 역량강화교육에도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경찰, 농산물 절도 항공 순찰

순창경찰서(서장 최규은)는 18일 순창군 전 지역을 헬기를 이용한 항공 순찰을 실시하였다. 이는 수확철을 맞이하여 발생이 우려되는 농산물 절도사건에 대한 범죄심리 사전 차단을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순창경찰은 농민들이 피땀 흘려 수확한 농산물을 절취당하여 1년 농사가 물거품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고 수확의 기쁨을 지켜주자고 전북형 항공대와 함께 항공 순찰을 실시했다.

항공순찰을 위해 범죄통계분석시스템을 이용 관내 범죄발생 현황을 분석, 범죄취약지 선정 및 농산물 보관장소·인삼밭 등에 대한 선별적 집중 순찰을 실시했다.

한편, 관내에서 여성범죄 등 강력범죄가 발생하거나 실종자 발생시 신속한 범죄진압 및 수색으로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항공대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최규은 서장은 "범죄는 9건 겨겨보다도 1건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며, 농산물 수확철마다 발생하는 농산물 절도 사건에 대해 항공기 등 특수장비와 데이터베이스화된 범죄분석시스템을 최대한 활용 범죄없는 지역을 만들어 공감치안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폭설 대비 선제적 대응

임실군은 동절기 폭설 피해 예방을 위해 제설대책을 수립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이를 위해 군은 오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도로 제설 특별대책기간'을 설정하고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도로 제설대책을 추진한다.

또한 위임국도 4개소, 지방도 6개소를 비롯한 군도 등 제설대책 노선의 작업을 위해 덤프트럭 3대, 살포기 3대, 굴삭기 1대, 데굴덱 1대, 트랙터 부속용 제설기 50대를 확보했으며, 신속한 제설을 위해 열화칼슘 70톤, 소금 700톤, 모래주머니 3만 여개를 제설대책 특별기간 전에 확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겨울철 재해대비 군민행동 요령과 선제대책 사항을 적극 홍보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할 것"이라며, "국도유지관리 사업소와 전북 도로관리 사업소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주민과 도로 이용자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고창군,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복지학당' 진행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고창군(군수 박우경)과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관장 대원스님)이 18일 부안면사무소에서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3회 복지학당'을 진행했다.

군과 종합사회복지관은 협약을 통해 2년차 보건복지부 시행 민간협력 활성화 공모사업 민간주도형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간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고창복지학당은 복지서비스 실현에 있어 민·관이 협력을 강화해 주민공감대를 형성하고 복지서비스에 누락되거나 중복되는 수요자가 없도록 희망하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복지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복지학당은 고창군 읍면동 허브사업과 연계해 고창군에 설치된

권역형 맞춤형복지팀 관할의 흥덕면, 성내면, 신림면, 부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80명을 대상으로 진안장애인인복지관 배인재 관장을 초빙해 '농어촌 주민조직화 사업의 필요성 및 지역사회 변화를 이끄는 주민의 역할' 등에 대해 강의하고 의견을 나눴다.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대원스님은 "민관협력활성화사업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고, 고창군 종합사회복지관이 정부3.0의 핵심과제인 민간협약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우경 군수는 "지역과 소통하는 교육의 장을 마련해 준 종합사회복지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없는 고창군을 위해 행정과 민간이"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